

이달의
으뜸중기제품

라이센 텐세 클리너 홈닦기

설거지 힘든 밀폐용기 뚜껑 텐세도 구석구석 청소

정순원 라이센 대표는 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. 밀폐 용기 뚜껑에 화장실 변기보다 많은 세균이 있다는 보도였다. 세척이 힘든 고무패킹 텐세가 원인이었다.

자취 생활을 하던 그는 안 쓰는 칫솔과 면봉을 이용해 세척해봤지만 번거로웠다.

주부들 처지에서 생각해 보니 '사업 아이템이 되겠다' 싶었다. 32살이던 2012년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제품 구상에 나선 이유다.